

SK엔론, SK가스 주식 원상회복

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15만주 빼돌려 ... 대 한도시가스 25만주도

외국계 증권사 직원들에 의해 빼돌려졌던 SK엔론의 대 한도시가스 및 SK가스 지분이 원상 복구됐다.

SK엔론은 2월22일 공시를 통해 피사취 주권 25만주의 반환 완료로 자회사 대 한도시가스 지분율이 37.42%에서 40.00%로 늘었다고 밝혔다.

또 SK가스 보유 주식수도 2월18일 기준으로 15만주 늘어 392만8537주(지분율 45.53%)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.

한편, SK엔론은 1월27일 증권사 직원의 주권 피사취로 SK가스와 대 한도시가스 지분 보유량에 변동이 있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었다.

빼돌렸던 주식은 SK가스 주식 15만주(1.74%)와 대 한가스 주식 25만주(2.58%)로 신고당시 종가기준 평가액이 80억원을 넘었었다.

<화학저널 2005/02/24>